

불자 세상보기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북한이 9월 25일로 예정됐던 이산가족상봉행사를 돌연 연기함으로써 개선 조짐을 보이던 남북관계에 또다시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북한은 완화의 길로 들어서던 남북관계가 “남조선보수파당의 무분별하고 악랄한 대결소동으로 또 다시 간과할 수 없는 위기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산가족상봉 연기 카드를 들고 나왔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 박는 반인륜적 행위”라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지난 5월 최후해 특사가 중국을 방문한 이후 연일 대화·평화공세를 퍼던 북한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가 이뤄진 직후에 봉기를 부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최근의 남북대화를 남북관계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는 데 대한 불만의

표출로 볼 수 있다. 대남 압박카드로 내민 개성공단 잠성공단 카드에 폐쇄불사로 반격한 박근혜 정부에 ‘굴복’한 북한이 이산가족상봉 연기카드를 내밀고 남측을 압박하고 대화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러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개성공단 정상화와 이산가족상봉 등의 성과가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원칙 있는 대북정책의 결과로 인식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대북정책에 관한 지지도가 높게 나오고 있다. 이에 고무된 우리 정부는 금강산관광재개를 위한 당국 실무회담을 예정보다 일주일 연기하는 등 대북정책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북측은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대화·평화공세를 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내용은 남측의 원칙론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한 불만이 이번 이산가족상봉 연기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금강산관광 재개가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도 한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당초 북한이 6월 6일 남북대화를 제의할 때는 개성공단 재개, 금강

산관광 재개, 이산가족상봉, 7·4와 6·15 공동행사 등을 포괄적으로 다룰 것을 제안했다. 회담대표의 격문제로 장관급회담이 무산된 이후 남측은 의제를 분리하여 개성공단정상화→이산가족상봉→금강산관광재개를 위한 실무대화 순으로 순서를 정했다. 북한이 이산가족상봉 이전에 금강산관광재개회담을 개최하려고 했지만 남측이 응하지 않고 상봉당일 갖기로 했던 실무회담마저 10월 2일로 연기하자 남측이 관광재개에 미온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산가족상봉설면회소가 금강산관광지구 안에 있기 때문에 이산가족상봉과 동시에 금강산관광재개를 희망했다. 하지만 관광재개로 지불하는 달러가 김정은 정권의 ‘돈줄’로 인식하는 남측 일부의 여론을 의식한 박근혜 정부가 관광재개에 적극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북한은 관광재개를 위한 남측의 의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산가족이 머물 숙소로 관광중단 이후 사용하지 않던 선상호텔인 해강호텔과 현대아산 직원숙소를 제안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남측은 이에 응하지 않고 외

금강·금강산 호텔을 주장하자 상봉행사를 연기하고 이산가족상봉을 금강산관광재개문제와 연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6자회담 등 다자대화 재개를 위한 움직임에 미국과 한국 등이 호응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으로 남북관계 속도조절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북한이 남북관계 복원에 적극적으로 나온 데는 경제적 이유도 있겠지만, 보다 본질적인 것은 북·미 적대관계 해소와 북·일 국교정상화, 그리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전제조건 차원이 크다. 하지만 북·미 대화 등 ‘평화로운 대외환경 조성’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남북관계 복원 속도를 늦춘 것으로 보인다.

이산가족상봉을 미룬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 인도적 문제를 정치상황과 연계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통이산가족들의 수명이 다해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산가족들을 인질로 정치목적 달성을 하려는 것은 천문과 인도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뤄진 이산가족상봉행사가 조속히 성사되기 위해서는 순수한 인도주의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사부대중 칼럼



박수호 덕성여대 지식문화연구소 교수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에서는 2011년부터 해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세 번째로 실시된 사회여론조사에서는 새 정부의 국민통합 성과, 국정원 개혁, 원자력 발전의 안전 문제, 종교의 사회참여, 웹툰, 힐링 욕구와 과제, 종교인의 수행법,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호국불교, 불교 발전 방안 등 정치, 사회, 종교 분야의 핫이슈들이 조사됐다.

우선 관심을 끈 것은 사회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종교(특히 불교)의 대응에 대한 인식이었다. <정의란 무엇인가>를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올려놓았던 정의와 공정성에 대한 관심은 최근 들어 ‘갑을관계’로 대변되는 부정의하고 불공정한 ‘잘못된 사회적 관행’에 대한 사회적 비판으로 다시 한 번 표출된 바 있다.

종교의 예언자적 기능을 강조하는 이들은 당대의 부조리와 사회문제를 극복하는 전위대의 역할을 종교에 부여하곤

한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은 종교가 잘못된 사회적 관행을 방지하는 개혁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종교는 사회의 일에 개입하지 말고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런 결과는 종교와 사회를 분리해서 인식하고 있으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거나 불교정도를 이룸으로써 사회를 올바르게 이끌어야 한다는 종교적 사명이 한국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첫 번째 불편한 질문과 마주해야 한다. 종교와 사회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어떤 종교문화가 이 같이 종교와 사회를 분리해서 인식하게 만들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다. 한국의 종교들이 혹은 종교지도자들이 한국 사회의 정의와 공공선에 무관심했던 과보를 받는 것은 아닐까?

한편, 힐링 욕구와 과제에 대한 조사 결과는 종교의 예언자적 역할이 경시되는 이유를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만

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힐링’의 방법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종교적 수행일 것이다. 힐링을 위해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수행을 하고 있을까? 불교 신자의 약 70%와 다른 종교 신자의 약 60%가 수행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스스로를 수행의 종교라고 규정하는 불교 신자들의 수행 실태는 가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

이 지점에서 또 다시 던져보는 불편한 질문 하나. 신도들에게 변변한 수행 방법조차 가르치지 못한 종교지도자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종교는 스스로의 힘이나, 혹은 절대자의 권능에 기대는 사람들이 상처와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임무이다. 종교의 기능적 관점에서 위기에 빠진 한국의 종교 모두가 치열하고 냉철한 성찰과 전향적인 도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의고는 한국종교문화연구소 뉴스테터에 기고글을 허락을 받고 게재한 것입니다.

한국인의 종교 인식에 담긴 불편한 진실

정성(24.4%), 과열경쟁에서 오는 스트레스(22.9%), 경제적 궁핍(16.4%), 직장/삶에 대한 불만(14.6%), 고독감(14.4%) 등으로 인해 힐링이 필요하다고 한다. 불만, 스트레스, 궁핍, 불만, 고독 등 눈앞에 닥친 고통의 회오리로 인해 현재 한국인들은 ‘나’를 넘어 ‘우리’를 생각할 만큼 여유로운 수가 없는 것이다. 우선 내 안의 고통을 치유하는 것이 먼저가 되었다. 그렇기에 종교에 대해서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을 개발해달라고 요구한다. 어쩌면 그런 고통을 만들어내는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이라면, 사회적 불합리를 해결하는 적극적 행동보다 힐링 프로그램 개발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그렇다면 또 다른 불편한 질문을 던져 보자. 눈앞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으니 종교의 예언자적 역할은 소홀히 해도 된다는 것일까? 사회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 파생되는 고통은 끝없이 되풀이된다. 수레는 두 바퀴로 굴러야 하고, 새는 양쪽 날개로 난다. 개인의 고통과 그것을 발생시키는 구조적인 문제, 이 양자

총무원장 선거, 비방 대신 정책 대결을

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선거에 현 총무원장 자승 스님, 前 총회회장 보선 스님, 대우 스님, 장주 스님, 혜종 스님 총 5명의 후보가 최종 입후보했다. 이로써 조계종은 안전한 선거 정국에 들어섰다.

양강구도를 이루고 있는 자승 스님과 보선 스님은 등록 직후 선거대책위원회의 조직과 정책 등을 발표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정책에 있어서도 자승 스님은 지난 4년간 성과의 안정적 계승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중점을 뒀으나 보선 스님은 종단의 청정성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혜종 스님이나 다른 후보들도 정책 발표를 준비하거나 앞두고 있다.

하지만 치열한 선거전 아래에는 비방과 폭로 등 흑색선거에 대한 조짐도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에는 각 후보 스님들의 승적에 문제를 삼은 문자와 E-메일 등이 유포되기도 했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가 9월 25일 밝혔

듯이 흑색 비방은 종단과 불교에 대한 사부대중과 시민의 신뢰를 떨어뜨려,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모두를 패자로 만든다. 사회법의 처벌대상이 아니라면, 법적, 승적 문제 등은 공동체 내부 해결 원칙을 철저히 견지해야 공동체의 자정능력이 향상된다.

이런 흑색 선거보다는 정책 선거에 주안점을 두고 여기서 종도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 시작은 정책 토론회가 될 것이다. 모든 후보 간의 정책을 평가·토론하는 정책 토론회는 선거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다행히 각 후보자들간의 정책 검증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최로 빠르면 10월 초에 열린다고 한다. 9월 24일에는 각 후보자 진영 관계자들이 일시와 진행 방식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비방과 폭로를 넘어 공명정대한 정책 선거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 이것이 정책 선거의 출발점이다.

생명나눔 대작 불사 ‘명예의 전당제’

명예의 전당은 스포츠, 예술 등 특정 분야에서 큰 족적을 남긴 이들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그런데 불교계에서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어 주목을 끈다.

바로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올 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장기기증 명예의 전당이다. 이는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적극 홍보하고 희망등록자 추천 100명 이상을 달성한 회원을 격려하고 포상하기 위한 제도다. 1년이 채 안됐지만 일단 효과는 성공적이다.

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삼문종 총무원장 지민 스님과 중앙총회회장 지경 스님, 육군학생군사학교 학림사 정행 이익수 법사 등 3인이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전인 스님은 협약식 당일 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서 102장을 전달했으며, 6월에는 197명을 희망등록자로 추천했다. 두 번째 주인공인 정행 이익수 법사도 희망등록자 누적 284명을 기록했다.

이러 지경 스님은 104명을 추천해 세 번째로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다. 특히 이 제도는 개신교, 천주교 등 이웃종교와 달리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불교계 장기기증 운동에 새 기폭제가 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일회성 캠페인으로는 장기기증 인식이 쉽게 바뀌지 않을 뿐더러, 사람들은 마음은 있지만 선불리 희망등록에 동참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명예의 전당제는 희망등록 확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지인이나 주변인들의 추천 및 독려가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더욱 효과적이며, 이곳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동기부여가 돼 희망등록 확대에 더욱 큰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특히 스님들과 영향력 있는 불자 및 명사를 대상으로 후보자를 발굴하는 데 주력한다면 장기기증 사업에 청신호가 켜질 수 있을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서해원 편집인: 박해월 인쇄인: 배성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대표팩스(02)737-0697
현대불교 시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령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해전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고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3 영가천도는 왜 필수 해주어야만 하는가?
4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5 영가들의 영함으로써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6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9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례)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해전법사
책자 안내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4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9 팔괘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해전법사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4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문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환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약물, 기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 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